

대림 제3주일

기도서 216면 (A해)  
 제1독서 : 이사야 35,1-6a. 10  
 제2독서 : 야고보 5,7-10  
 복음 : 마태오 11,2-11

#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 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마태 11,10).

### 강론



## 사랑이 머무는 곳에

김 봉 희 신부

한 밤 인적없는 외진 마굿간에 고히  
 탄생하신 메시아 임금님,  
 구유를 요람삼고 가너린 처녀품에 안겨  
 어이 이리 오셨나이까?

한 낮 끝사나운 족축과 흥청대는 패거리가  
 그리도 역겨워 차라리  
 어둡고 퀴퀴한 짐승우릴 찾으셨는지요.  
 가냘픈 아기로 별거벗고 오신 당신의  
 초라한 성탄, 신의 육화(肉化)에  
 저희 죄생 두렵고 놀라와 감격앞서  
 몸 둘 바 없아옵니다.

그 높으신 뜻 어찌 다 헤아리있가, 새기리있가  
 가 없으신 사랑, 님의 크신 은총을—

현제도, 오만한 똑똑이들은  
 너무도 어설픈 강생(降生)이 밀기잖아  
 자꾸만 의아했습니다.  
 오시기로 되어있는 분이 정녕 님이신가 고...

님의 강생 기린다는 오늘 대림(待臨) 인간들은  
 아예, 마굿간조차 생소해 한답니다.  
 온 누린 지금 떠들썩한 정글벨로 소란하고  
 번쩍이는 네온싸인에 온통 들떠  
 축하파티 준비만 한창 꾸미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우신 구유는 생각지도 못하고요.  
 현대에 베를레헴 고을은 무엇인지요.  
 소와 양과 목동, 그리고 마리아는 어디 있고요.  
 어떨가야 아기 예수님을 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화려하게 장식된 도성, 교회와 가정  
 거창한 저희들의 축제에  
 주님, 그래도 여기 오시겠습니까?  
 어이 없어도 경축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아니올시다. 감히 아니 밧졌습니다.  
 어둠에 오신 예수님,  
 이젠 날도 빛가오니  
 다시, 울고 애는 한 들 서러운 생  
 물혀사는 우리들에 내리옵소서.  
 그리고 차디찬 세상이지만  
 아직 하늘 맑은 자선의 파스한 마음에  
 포근히 임하시옵소서.  
 사랑이 머무는 곳에— 아멘.

(덕진천주교회)

## 소리 나누자!

교회는 성탄절을 앞둔 대림 제3주일을 자선의 날로  
 정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가르친다. 자선이란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시설에,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에  
 입각하여 베푸는 물질적 경제적 원조”를 말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선을 “회개의 주요한 형식의 하나”로  
 생각해 왔으며, 단식에 대한 규칙의 완화가 있는 뒤부터  
 는 이에 버금하는 것으로 널리 권장해오고 있다.

어떻게 하는 일이 자선인가? 자선사업은 애덕의 실천  
 7가지를 말한다. 최후의 심판에 적용되는 기준들이다.  
 즉,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일·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일·  
 집없는 자에게 머무는 곳을 제공하는 일·병든자를 방문  
 하는 일·감옥에 있는 자를 방문하는 일·죽은 자를 묻  
 는 일 등을 말한다.

우리 주위에는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어  
 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나눌 것을 갖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 자리를 피  
 하려고 한다. 우리의 처지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  
 러나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나눌 마음이 없  
 다는 점이다. 꽃동네를 시작할 수 있게 한 한마디, “얼  
 어먹을 힘만 있어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에게 빠져 나갈 구멍을 막아 버렸다.

나누자! 먼저 마음부터 하나가 되자. 그리고 가진 바  
 를 조금씩 나누자. 나누면 분명히 더욱 풍요로워진다.  
 이것은 커다란 은총이요 상급이 아닐 수 없다. 나누자!  
 특히, 천국에 들고자 애쓰는 이여, 천국에 들고 싶으면  
 더욱 나누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때의 신앙은 헛것이  
 니라.

## 순정이 산책

1987년 꾸르살로 교육  
 남성 25차. 1월 9일-12일  
 여성 22차. 1월 16일-19일  
 접수마감 86년 12월 23일

수강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과  
 상의 바람

### 미국 “베이사이드 성모발현”에 대한 진상,

근래에 일부 신자들이 베이사이드의 성모발현과 관련 하여 “로사리오(혹은 미카엘)”라는 유인물을 비밀리에 널리 유포하여 많은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회당국의 공식적인 인준을 받은바 없으며 한국 주교회의에서도 이미 급한 바도 있고, 또한 성서나 교회정신에 어긋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혼란케 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교구에서 베이사이드 지역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 부록크린 교구에 문의하였던 “성모발현”에 대한 회답서신입니다.

발신 : 미국 부록크린 교구 상서국  
수신 : 인천교구장 나 콜리엘모 주교  
존경하올 나 주교님,  
주교님께서 문의하신 “베이사이드 성모발현”에 대해 도움이 되어 드리교자 그 자료들을 동봉하여 드립니다.  
“성모발현”에 대해 저희 교구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바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록크린 교구의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입장은 소위 “베이사이드 성모발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교님께서 저희 부록크린 교구의 공식적인 견해를 널리 공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서교실 ㉠

### 오시기로 되어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마태 11:3).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 걸려넘어지는 놀랄만한 기사(마태 11:2~6)는 마태오복음, 루카복음에만 나온다. 루가의 것이 좀 자세하지만 다 대동소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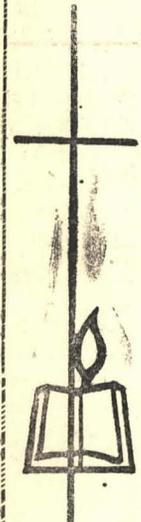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양」(요한 1:29)이라고 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를 보고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마태 11:3)라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 질문케 하였다. 이는 참으로 모순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마태 11:2~3).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놀름하였다. 그 답변은 참으로 냉담하였다. 「너희가 듣고 본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고 하면서 진짜 「복음적인 것」(마태 11:4~5)을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부하다」(마태 11:6)고 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모순적인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첫째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설(說)이 있다. 요한 자신의 신앙은 동요되지 않았으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요한의 신앙은 동요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옥살이의 고생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전도가 너무 더딘 것 같이 생각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걸려 넘어졌다는 설(說)이 있다. 실제 세례자 요한의 신앙이 동요되었다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도 엘리야처럼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예수의 사업이 그가 기대했던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신앙은 순수할수록 동요하는 법이다. 계세마니 동산,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의 신앙도 심히 동요되었던 것이다. 요한에게 있어서 신앙 상 과오가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 자신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화(理想化)한 「자기예수」를 믿었다는 것이다. 신앙은 그저 믿는 것이다. 그것은 수용(受容)하는 것이다. 그것은 통채로 삼키는 것이다. 그것은 향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를 넘기는 것이다.

예수는 「걸림돌」(롬 9:32, 루카 2:34~35)이다. 요한은 걸려 넘어졌다.



☆ 축! 개원

**김 이 비 인 후 과 의 원**

김 혈 겸(빌리버)  
남원시 용성외과 앞

☎ 32-7117 · 32-7116

사조참치 전북대리점  
초저온(-55.0)  
무공해 참치!  
횡감참치, 알, 내장

**순정이슈퍼마켓**

김 원 겸(시릴로)  
전화 3-3550

▣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전주시 고사동 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 앞)

☎ 병원 4-1225 자택 4-9886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글라라)

# 교 구 소 식

1. 남성 제25차 꾸르실료 : 87년 1월 9일~12일까지  
여성 제22차 꾸르실료 : 87년 1월 16일~19일까지
2. 전주지구 소년꾸리아 회의 : 14일 오후 1시30분, 장소-전동성당 사제관 2층
3. 사제어머니 모임 : 20일 12시30분, 장소-동산천주교회 사제관
4. 12월 레지아 윌레회의 개최 : 12월 21일 14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레지아 회의실  
참석범위-산하 평의회(교미씨움·꾸리아) 간부 및 직속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5. 예비신학생 피정 : 일시-12월 22일 오후 2시~23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대상-교3·대·일반 성소자, 회비-3천원  
준비물-세면도구·필기도구
6. 전화증설·변경 안내 : 요촌천주교회 사제관 42-1337, 사무실-②2037·수녀원②2583  
월명동천주교회 사제관·사무실 42-2041, 수녀원 42-0269  
유치원 2-8445
7. 주소 변경안내 : 서석구 신부님 전화 404-292-6321  
John Sok-Ku So  
The Korean Cutholic Center  
837 North Indian Creech Drive  
Clarkston, G A. 30021  
U. S. A

### 10만인 성지순례

1 코스 : 전주 숲정이 → 치명자산 (오후 1시~4시)

일	요일	담당 신부	일	요일	담당 신부
14	일	김동준 신부	21	일	배영근 신부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89, 1~14 요한 12, 44~50

### ♣ 잡 간 !

## 세계 가톨릭신자, 8억 8천만명

로마 교황청의 인류복음화 성령에서 발간하는 "Fidesi 신앙"이라는 잡지는 1986년 9월 20일자에서 세계 종교인들의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 발표를 보면 세계 가톨릭 인구는 8억 8천 6백 98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18%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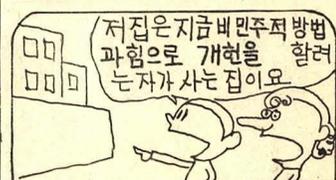
이 비율은 세계에서 가톨릭이 가장 큰 교회임을 알리고 있다.

세부사항을 84년의 연말 통계로 비교해보면,

- ① 아프리카-인구 5억 3천 5백 16만 (가톨릭신자 6천 9백 10만 4천, 12.9%)
- ② 아메리카-인구 6억 5천 6백 7만 6천 (가톨릭신자 4억 1천 6백 8만 3천, 63.42%)
- ③ 아시아-인구 28억 3천 9백 5만 4천 (가톨릭신자 7천 65만 2천, 2.49%)
- ④ 유럽-인구 6억 9천 4백 11만 2천 (가톨릭신자 2억 7천 7백 82만 7천, 40.03%)
- ⑤ 오세아니아-인구 2천 4백 43만 1천 (가톨릭신자 6백 44만, 26.40%)

- \* 세계 가톨릭 인구 (84년말) 8억 4천 10만 6천
- \* 세계 인구에 가톨릭 인구비 - 17.69% (84년도 세계 인구 - 47억 4천 8백 83만 3천)
- \* 전세계 사제수 - 40만 5천 9백 59명
- \* 전세계 대신학생수 - 8만 3백 2명
- \* 사제 1인당 사목해야 할 신자수 - 8천 1백 94명
- \* 전세계 주교수는 3천 9백 64명으로 각 대륙별로 보면,
  - ① 아프리카 - 4백 81명    ② 아메리카 - 1천 5백 30명    ③ 아시아 - 5백 53명
  - ④ 유럽 - 1천 2백 96명    ⑤ 오세아니아 - 1백 4명

## 요심이 (697) 김병오



### 직 원 채 용

1. 모집인원 : 여자 ○명
2. 자격대상 : 여고이상 자격자로 주산·부기·타자 3급이상 자격증 소유자
3. 제출서류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 ② 제기능 자격증사본
  - ③ 이력서 (사진 부착)
  - ④ 주민등록등본
  - ⑤ 신원증명서
4. 서류 제출마감일 : 1986년 12월 17일 19시까지
5. 서류전형 및 면접 : 1986년 12월 18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6. 합격통지 : 1986년 12월 19일
7. 문의처 : 당조합 총무과 (☎ 6-6009)

**전주임원신용협동조합**

28년간 닦아온 기술과 신뢰 속에  
앞서가는 현대안경원!

-교우님 특별우대-

## 전 주 현 대 안 경 원

김 문 곤(요셉) 김 서 곤

☎ 83-6644·2-3744

전주시 중앙동 3가 72-1(전주우체국 후문앞)

## 베소라성서 강의 제자들에게 의한 전도 개시

(마태 9:35-38)

-예수 전도 동기-

일시 : 1986년 12월 19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기도로써  
사람은 강해지고  
하느님은  
약해진다.”

-성 아우구스띠누스

### 명동피부과의원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수·사 2-7032  
아파트 75-6389

주임신부 김 용 태  
보좌신부 김 기 곤  
사목회장 노 인 석

1. 금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소(결혼, 평신도직)와 특수성소(성직, 수도직)에 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2. 성탄 판공성사일정: 국민학생들-13일 오후 2시부터 남노송동-16일 오후 2시부터, 인후동-17일 오전 10시부터, 중노1가-18일 오전 10부터, 중노2가-19일 오전 10시부터, 중·고생 및 직장인들-21일 오후 2시부터. 각 가정의 세대주는 본당신부님과 면접 있음
  3. 금년도 교무금은 판공성사 전에 완납하십시오
  4. 대의원 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코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6. 신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각 단체의 신년도 사업계획서를 15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세요
  7. 오늘 불우한 이웃돕기 2차현금 있습니다
  8. 오센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9. 본당 엠이가족 전체모임: 17일 저녁 7시30분
  10. 금주전례: 해설-이종관, 독서-봉헌-윤석연 부부, 신자기도-임영빈 부부, 촛불봉헌-최재인 부부  
차주전례: 해설-임영빈, 독서-봉헌-김용기 부부, 신자기도-백종업 부부, 촛불봉헌-손만술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81,351원 교무금: 2,886,300원  
지난주 신축금: 810,000원 감사헌금: 30,000원  
아파트 봉헌금: 195,200원 교무금: 623,500원  
신축금: 45,2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사무실 2-5238  
수녀원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목회장 김 성 원

1. 코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빈첸시오회: 오늘 코리아 회합후
  3. 예비자 집중교리: 15~19일 저녁 7시30분
  4. 병자 판공성사 및 불세례: 16일 오전
  5. 영세식: 20일(토) 저녁 7시
  6. 수녀회: 18일 오전 10시
  7. 성우회 정기총회: 25일 자정미사 후
  8. 판공성사: 23일 오전 10~12시30분, 오후 2시30분~6시 저녁미사 후
  9. 대림절 희생, 보속 성미 및 헌금(불우이웃돕기) 다음주일까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교무금 미수 완납바람: 금년도 며칠 안남았음입니다
  11. 세대별 신부님 면담: 16일-태평동 1-4반, 17일-태평동 5-8반, 18일-고사동 1-2반·진북1반, 19일-진북 2-5반·기타는 모은날에
  12.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공사헌금: 3만원-김현주, 2만원-박종덕, 1만원-김정숙, 계-6만원  
누계-33,359,000원  
증! 장담 커맨 및 휘장, 익명 감사합니다
  13. 축! 결혼: 12월 21일 12시  
신랑-김진우(니고나오)군, 신부-최명숙(루피나)양
  14. 금주 성당청소: 월-사랑하오신pr, 토-순결하신pr
  15.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김수영 ②노준덕  
봉헌-이남덕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①정동민 ②이갑진  
봉헌-박상기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10,425원 교무금: 891,550원  
해외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123,730원

(삼관)

사제관 82-5079  
사무실 82-5434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목회장 이 정 우

1. 대림절 특별강론: 21일 공식미사 중에 강사-서광석 신부
  2. 성탄 총연습: 성가대, 주일학교, 중·고학생회-15일
  3. 판공성사: 18일-월신·상·하신광·어두·석장, 19일-신홍·백암·내정·서당·의암·마지, 20일-기타·직장인·학생, 시간-오전 10:00~12:00, 오후 2:30~5:00 4. 울뜨레아: 17일 저녁미사 후
  5. 50주년 헌금: 이수복-2만원, 김한철-1만4천원, 박순귀-1만원, 임우순-5천원, 박봉열·장진수-2천원
  6.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55,030원 교무금: 102,000원  
2차헌금: 77,9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사무실 " " " " " "  
수녀원 2-2276

주임신부 감 덕 황  
사목회장 김 낙 규

1. 자선의날: 불우한 이웃을 위한 특별헌금 있습니다
  2. 반장님 릴레호: 오늘 공식미사 후
  3. 프란치스코 행제회: 오늘 오후 1시
  4. 청년성가대 연습: 매주 수·목·금요일 오후 7시30분
  5. 예비자 특별교리: 평화동-화·금·토요일 오전 10시 본당-지나주 숲정이 참조
  6. 추계 판공성사: 본당-16일부터 20일까지 오전 10~12시·오후 2시~5시 미사시간 전후, (16일 1~6반 17일 7~12반, 18일 13~18반, 19일 19~24반, 20일 25~27반·기타반), 광곡공소-14일 오후 3시30분, 마울리공소-21일 오후 3시
  7. 축! 영세식: 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당-24일 오후 3시, 평화동-24일 오전 10시
  8. 자모회: 국민학생 부모님께서는 자모회에 협조 바랍니다
  9. 코리아 간부개편: 단장-한형수, 부단장-오상팔, 서기-윤안나, 회계-차상열,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10. 금주전례  
본 당: 해설-김배근, 독서-①장현주 ②김한기  
봉헌-계1반장 가정  
평화동: 해설-함문권, 독서-①정형석 ②오수환  
봉헌-계2반장 가정  
차주전례  
본 당: 해설-고정수, 독서-①유용산 ②장기호  
봉헌-계2반장 가정  
평화동: 해설-박명환, 독서-①장수중 ②김화영  
봉헌-계3반장 가정
- 지난주 봉헌금: 본당-304,790원 평화동-109,180원  
계-413,970원 특별헌금: 65,370원  
교무금: 1,148,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사무실 2-3222  
수녀원 2-8347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목회장 최 상 범  
김 병 오

1. 영세식: 20일 오후 7시, 집중교리-11일~18일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통신교리 수강자 환영)
  2. 추계 판공성사: 16일-동완산동·서완산동, 17일-동교동·서교동, 18일-풍남동·남노송동, 19일-전동·중앙동·경원동·다가동, 20일-기타·학생·공무원, 시간-오전 10~12시, 오후 2~5시(시간·날짜 엄수)
  3. 주민등록등본: 아직도 제출않으신 분 사무실에 제출
  4. 소년코리아: 오늘 오후 1시30분(사제관)
  5. 성마리아 코리아: 차주 6. 성화회: 차주 공식미사후
  7. 울뜨레아: 다음주 저녁미사 후, 7시30분
  8. 가톨릭신문을 구독합니다: 미사후 접수 받음
  9.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기정희, 독서-①최병래 ②이덕수  
8시 30분: 해설-방유경, 독서-①김홍기 ②유공수  
공식미사: 해설-백홍자, 독서-①최병남 ②김병오
- 지난주 봉헌금: 964,140원 교무금: 778,000원  
해외선교사 돕기 헌금: 273,5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사무실 2-0915  
수녀원 2-4804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목회장 이 정 선

1. 성탄영세자 특별교리(호자 7기)  
기간-15일~20일·23일 저녁 7시~9시  
본당신부님과 면담-교리기간 중 오후 2시~5시  
16·17일 저녁미사-6시30분
  2. 초월신부님 강론 및 고백성사 강론: 김동준(사목국장) 신부님-21일 주일미사 중, 고백성사: 21일 공식미사 후~오후 3시까지, 22일 저녁 7시~9시, 공동모속: 히브리서 전체(신약420쪽) 또는 묵주기도 15단
  3. 합동 혼배성사(조당신자 혼배포함): 24일 영세식 직후 성사집행 예정, 혼배성사 분을 원장수녀님께신청
  4. 축하합니다! 새 브레사시디움 탄생  
바다의 별: 단장-최신주, 부단장-조영혜  
서기-정명순, 회계-양영실  
하늘의 문: 단장-최승기, 부단장-김정곤  
서기-박수환, 회계-정상호
  5. 모임: 오늘-글라라회, 차주-성모회
- 지난주 봉헌금: 643,630원 교무금: 1,190,500원